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2. 10.(금) 09:30	배포일시	2021. 12. 10.(금) 09:00
담당과장	기재부 미래전략과 최재혁 과장(044-215-4910)	담당자	김민진 사무관 minjin11@korea.kr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 김유빈 실장(02-2224-9802)		염승선 행정원 ssy229@nafi.re.kr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우현식 선임연구위원(044-500-4133)		이경애 전문위원 leeka@kdi.re.kr

「제3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 -

□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제3차 미래전략컨퍼런스」가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을 주제로 12. 10.(금) 개최됨.

* 미래전략컨퍼런스는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9년 신설하여 운영 중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및 홍장표 KDI 원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음(별첨 1~4)

- 홍남기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소득 3만불·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지난 7월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는 한국의 지위를 세계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함

- 다만, 성과의 이면에는 ①저성장, ②인구위기, ③기후위기, ④양극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s)들이 있다고 하면서

- 회복과 대전환을 위해 ①혁신, ②사람, ③포용과 ④지속성 등 4가지 핵심 키워드에 중점을 두어, 향후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국민행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실천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영사에서 언급

-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기 속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 ①초격차를 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초개척(beyond frontier)을 추진하고, ②탄소중립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며, ③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

-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국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미래비전 2037' 보고서를 통해 성장일변도로 달려온 대한민국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도성장 과정에서 미루었던 '개인의 삶의 질'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5년 1% 하락의 법칙 :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음

- 김세직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p씩 규칙적으로 하락하여 0%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5년 1%하락의 법칙과 제로 성장의 저지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자본이 성장을 이끄는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창조형 인적자본에 투자할 조세-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이후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경로와 현재를 진단(세션 1)하고 회복과 대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전망과 과제·도전 요인을 파악(세션 2)하는 한편, 회복과 대전환의 전략과 기반여건을 탐색(세션 3)했으며 종합토론(세션4)으로 이어 진행됨

① '세션 1'에서는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경로와 현재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음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발표
- 지난 60여년 간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부문간 격차 확대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
-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으로 기술·자본집약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①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기업의 규모화, ②생산성 높은 기업·산업으로의 일자리 이동, ③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 방향성을 제시

- 정혁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산업질서 재편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유일한 대응방안이라고 하면서,

- 핵심분야 원천 기술 개발, ESG 리스크 관리기술과 제도 혁신, 창업촉진 플랫폼 제공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

-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2037년 한국인의 선호미래' 설문결과를 공유하였음

- 바람직한 국가 미래상에 대해서는 개인성장과 분권화, 다원가치 중심의 미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76.2%*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 국가성장과 중앙집권, 경제적 가치 중심의 미래에 대해서는 23.8%가 선호의견 표시

② '세션 2'에서는 '회복과 대전환 : 주요 부문별 전망과 과제 - 주요 도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의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형 경제 진입과 산업생태계의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
-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가 생산에서 지식으로 변화되는 등 성장동력이 지식에 있는 선진국형 경제로 진행 중임을 설명
- 다만, 산학협력과 산업·중소기업 정책 등에서 지식의 생산과 수요가 연계되어 지식이 확대·재생산되는 순환 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
-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과 사회 복지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성 복지지출의 과도한 증가 및 노인빈곤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완만히 하는 한편,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여 초고령사회 노후 소득 보장을 재정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은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발표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그리드(Grid) 확충, 에너지효율 제고, 청정 수소 확산 및 도시 구조·문화의 전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
- ③ '세션 3'에서는 '회복과 대전환의 전략과 기반 여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여영준 국회 미래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메가 트렌드 시나리오 도출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 코로나 시대 중장기 환경변화를 특징 짓는 10가지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 역량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
 - * 디지털전환 기술 기반 의료체계 혁신과 원격의료 생태계 형성, 사회적 혁신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촉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풀뿌리 혁신 및 개방형 혁신 확대 등
 -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
 - 현재 과학기술이 당면한 문제는 ①회복력(Resilience), ②경쟁력(Competitiveness), ③삶의 질(Well being), ④안보/안전(Security) 4가지 이슈로 요약된다면서, 향후 과학기술 혁신의 발전 방향을 제시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기술패권과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연계전략'을 발표하였음
- 미국 주도의 글로벌 협력 전략은 첨단기술 중심, 가치 중심, 디지털 통상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양상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치 중심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체제에 대한 선도적 참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오늘 컨퍼런스는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발표 자료는 KD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제3차 미래전략컨퍼런스」 프로그램

시간	세션 구성	발표자
09:30 ~ 10:30 (60분)	개회식	
	① 개회사	부총리
	② 환영사	국회미래연구원장 KDI 원장
	③ 축사	국회의장
10:40 ~ 12:10 (90분)	④ (기조발제) 5년 1% 하락의 법칙 : 원인과 해법	김세직 서울대 교수
	(세션 1) 진단 : 한국경제·사회의 발전경로와 현재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좌장 :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①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	고영선(KDI)
	② 코로나19 이후 산업질서 재편과 미래전략	정혁(서울대)
	③ 2037년 한국인의 선호미래	박성원(국회미래연)
	토론 ① 강동수(KDI) ② 이명호((사) 미래학회)	
12:10 ~ 12:40	(오찬 강연) 메타폴리스, 우리는 메타버스로 출근한다	이두섭 (직방 이사)
13:00 ~ 14:30 (90분)	(세션 2) 회복과 대전환 : 주요 부문별 전망과 과제 - 주요 도전은 무엇인가?	좌장 : 이철희 (서울대 교수)
	① 선진국형 경제 진입과 산업생태계의 재구축	김주훈(KDI)
	② 인구고령화의 도전과 사회복지적 대응	양재진(연세대)
	③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토론 ① 김정호(아주대) ② 김진영(건국대)	
	(세션 3) 회복과 대전환의 전략, 기반여건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좌장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14:40 ~ 16:10 (90분)	① 코로나19 이후 메가트렌드 시나리오 도출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국회미래연)
	②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역할	박병원(STEPI)
	③ 글로벌 협력·연계 전략 : 기술패권과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김태황(명지대)
	토론 ① 채희율(경기대) ② 서용석(KAIST)	
	(세션4) 종합토론 : 비람직한 새로운 정상상태(Next New Normal)와 새로운 거버넌스	좌장 : 권대봉 (중부대)
	(특별발표) Strategic Foresight for Successful Net Zero Transitions	던컨 캐스백스 (OECD 미래전략본부장)
16:20 ~ 17:50 (90분)	(토론) 류영재(서스틴베스트) 이상용(건국대) 한훈(기재부 차관보) 우천식(KDI)	

별첨 1

개회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 그리고 KDI가 함께
한국의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미래전략컨퍼런스'가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빛내주시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님, 홍장표 KDI 원장님과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김세직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국내외 발제자 및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았던 지난 2년간,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쏠지구적 위기**는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속도와 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룬 성과와 우리가 가진 저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위기의 극복은 물론 다가올 미래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미래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성과와 그 이면 >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2017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
소득 3만불·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지난 7월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는 **한국의 지위를**
세계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위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경제규모 Top 10에 진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코로나위기 중임에도 역대 최대규모 수출을 기록하였고,
최근 OECD 통계(12.1)는 G20 선진국중 한국이 2023년까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wicked problems)”이
우리 내부에 누적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 타격하였고,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경제의 구조적 과제 >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로인을 정리하면
①저성장, ②인구위기, ③기후위기, ④양극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저성장 위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¹⁾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에 의한 **저성장세**는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중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투자 부진, 재정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위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고
아울러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출생률 저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으로 인해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우려는 물론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 위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는 등
全인류 삶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인 기후변화 대응은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passive)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산업구조,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전향적(proactive) 변화**를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양극화 위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정에서도 K자형 회복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격차가 교육, 문화, 삶의 질 격차로 확대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고착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구조적 위기로인들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 위기로인들에 얼마나 잘 대응해 내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길을
올곧게 걸을 지, 보폭에 있어 지체할지 여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 금년도 주제 : 회복과 대전환 >

내외 귀빈 여러분,

금년 컨퍼런스 주제인 “**회복과 대전환**”과 관련,
우리가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4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입니다. **혁신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입니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빅데이터,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경쟁적으로 투자**(프론티어 전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등
미래혁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오고 있으며,

1) '23년 G20 선진국 실질 GDP 규모 ('19년=100)
- (한)109.0, (호주)108.5, (미)108.3, (캐)106.0, (프)104.5, (독)104.3, (이)103.8, (영)103.2, (일)101.5
2) 잠재성장률(% , 한은) : ('01~'05) 5.0~5.2 → ('16~'20) 2.5~2.7 [('19~'20) 2.2내외]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 소주기에 걸친 촘촘한 지원 등 그 어느때 보다 창업·벤처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클라우드·블록체인 산업 등 **미래 핵심분야 육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대전환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컨버전스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한 분야 최고 전문가가 십만 명의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할 만큼 **인재육성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및 융합기술 분야 인재**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K-Digital Training,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사업을 통해 5년간 약 41만명의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중·고 무상교육 및 평생교육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급격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성장사다리 기능 강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포용」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망 보강, 사회적 자본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2000년대 높은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향상은 지체³⁾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신앙극화 확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충격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사회안전망,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내실있게 보강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돌봄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저탄소(E)·포용(S)·공정(G)으로의 대전환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협력·연대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경제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속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디지털·그린 등 산업 대전환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강력 추진중입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에 향후 5년간 22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아울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자생력 강화 노력 등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형 주력산업의 **저탄소화**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지원은 물론 **선제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공정 노동전환**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맺음말 >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달(11.22일)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태양인 K-STAR**가 세계 최초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핵융합 발전 분야의 세계 선두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뜻합니다.

이 사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 유망한 **인재**들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로서, 향후 **취약계층**에게도 **연구적인 전기공급**의 가능성을 열은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키워드^(혁신·인재·포용·지속성)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미래발전방향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즉 향후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동시에 이루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향하는 **최적경로 설정**을 뒷받침해 줄 **“초정밀(hyper-accurate) GPS⁵⁾”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3) OECD BLI : 30위/40개국(‘20), UN 행복지수 : 62위/149개국(‘21), 시장소득(보정) 지니계수 : (‘98) 0.311 → (‘19) 0.404

4)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 상공의 날 기념식, ‘21.3.31)

금번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그러한 초정밀 GPS 구축 및 작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컨퍼런스 참석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 그리고
다양한 타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환영사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 안녕하세요.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현곤입니다.
-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래전략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가 벌써 올해로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사를 보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올해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회복과 대전환”을 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미래 환경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회복을 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 국회에서는 지난 1년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최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국가의 성장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았던 개인과 사회의 복원을 강조하고, 다원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실천 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과거 경제 구조의 성찰을 바탕으로 회복과 대전환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미있는 발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김세직 교수님을 비롯해,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허경욱 대사님, 이철희 교수님, 박진 교수님, 권대봉 총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의 발제, 토론, 오찬 강연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 사회의 회복과 전환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성찰과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별첨 3

환영사 (홍장표 KDI 원장)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홍장표입니다.

우선 「제3차 미래전략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주실 연사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연시키게 될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난 걸음을 되돌아보면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올해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을 한 후, 내년에는 3.0%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르고 견실한 모습입니다. 산업부문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게임’과 ‘지옥’ 같은 K-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응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초격차를 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초개척(beyond frontier)**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잘 해왔던 산업을 더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오찬 특별 강연에서 이두섭 직방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전 직원이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재택근무하는 메타폴리스 사례는 초개척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탄소중립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국가전략**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 가지로 예로 그동안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던 우리의 조선산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더 많이 살리기 위해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디지털 저숙련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경제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차 미래전략컨퍼런스」가 「지식 플랫폼」으로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해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참석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별첨 4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2021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래전략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기획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회복과 대전환’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넘어 뉴노멀 시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발전경로와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주요산업 부문별 전망과 과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과 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만들었고 ‘미래비전 2037’보고서를 이달 8일에 발표했습니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대한민국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전환은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미루었던 ‘개인의 삶의 질’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